대학진학지도의 실태와 문제점

이 상 갑 | 경복고등학교 교장

Ⅰ. 들어가는 말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점으로 입시철에 접어들면 온 나라가 난리를 치르게 된다. 교회나 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부터 시험을 치른 후에 눈물을 흘리는 수험생의 모습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안쓰럽게 한다. 시험에 대한 난이도 논쟁이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차이를 놓고 백가쟁명으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실어 각종 언론매체가 법석을 떠는 것도 해마다 별반 다르지 않다. 학부모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학생 자신이 일생을 통해 살아갈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첫 과정이기도 하기에 온통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대학의 입시 자율화의 추세 속에 다양한 입시요강과 전형방법을 일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합격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조바심을 치는 속에 입시 산업이라 불릴 사교육까지 번성하여 이래저래 학부모나 수험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입시 관련 정보가 세세히 공개되지도 않으니 고등학교 현장에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또한 당연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험생이라 불리며 입시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1학기에 1학기수시모집을 치르고, 2학기가 되면 2학기수시모집에 대비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라는 내신에 대비를 계속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는 각 대학의 요강을 탐색하며 입시 전략을 세우고 논술과 심층면접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게 된다. 그 동안에 출결, 봉사 등의 기타 자료로서 전형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수상 실적도 잘 관리해 두어야 한다. 정시에서 가, 나, 다 군별로 자신에 알맞은 학교를 선택하고, 때로는 산업대와 전문대의 경우까지 아주 수많은 선택과 시험을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성적 지도는 물론이고 정보 제공과 입시 상담을 하고 학생의 지친 마음도 달래면서 한 해를 지내야 한다. 낮밤이 없을 정도의 참으로 힘이 든 통과의례의 세월나기인 셈이다. 물론 3학년 1년 동안만의 문제는 아니다. 1학기수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 2학년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처럼 바뀐 7차 교육과정에 다 달라지는 수능시험과 대학마다 다른 선택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학년에서부터 대학입시의 힘겨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졸업생에 대한 추수 지도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공교육이 진로 및 진학 지도면에서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교육이 이렇게 번성한 것처럼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고, 대학 입학 후의 기초실력 부족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도 한다. 졸업생과의 성적차이에 대하여도 학교교육의 수업 방식에 대하여 다소 엉뚱한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의 진학 지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제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고등학교와 대학의 상호 이해와 협조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Ⅱ. 대학입학시험의 경향과 진학 지도의 실태

1. 대학입학제도의 자율화와 다양화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는 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 영, 수 중심의 본고사와 기여입학 정도만을 제외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199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가 모두 제각각의 선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간섭이 최소화되고 고등학교와의 연계성도 사실은 느슨한 셈이다.

이처럼 자율화를 바탕으로 대학마다 능력있고 창의적인 학생을 뽑기 위해 마련하는 세부적인 입학전형 방안은 점점 다양화되는 경향이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은 선발시기의 다양화이다. 수시모집제도의 도입으로 거의 연중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1학기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을 위주로 1, 2학년 성적을 위주로 하여 면접 성적과 특기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주로 상위권 대학을 위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조기에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여 입시의 고통에서 일찍 벗어나는 특징적인 방식이다. 2학기수시모집은 30% 가량의 인원을 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추천서, 논술과 면접, 그리고 수상실적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선발하고 최후에 수능의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하여 선발하는 형식으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반영한다. 정시모집은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가, 나, 다군 별로 세 번의 복수 응시 기회를 주는 본격적인 입시 선발 유형이다. 주로 수능과 내신,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선발한다. 이렇게 볼 때 학생마다 최소 1회부터 기본적인 3회와 5회의 응시 기회가 부여되며, 전문대의 수시와 정시를 포함하면 원하는 대학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개별화된 전형 요소의 형태이다. 즉 대학마다 시기별, 단계별로 각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에서도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와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1, 2, 3학년별로 각각 20, 30, 5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다. 때로는 수시에서 평어와 석차를 각 50%씩 섞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원점수, 변환표준점수, 전체 영역, 일부 영역, 가중치 부여 등과 같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골라서 응시해야 한다. 일부 영역의 만점자를 대상으로 우수

자를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논술의 경우에도 우선 1단계 선발의 자료로 쓰는 대학도 있고, 영어 지문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면접도 인적 확인으로 그치는 정도에서부터 시사 상식과 인성, 적성, 사회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 심층면접으로 전공 실력을 평가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또한 정말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자신만의 특성에 맞추어 대학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는 2004학년도 입시와 2005학년도 이후의 입시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의 양상이다. 2005학년도 입시의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고, 고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의 반영으로 대학별로 입시 반영 과목이나 영역을 사전 예고하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방식의 입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지속적인 선택과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2. 진학지도의 실태

현실적으로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아무리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시선이 대학입시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며, 언론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의 강도로 보아 학교교육이 외부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도 부각이 되게 마련이다. 어떤 입시제도에서도 사교육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교육의 질 문제가 입시와 연결되어 좁은 시각에서만 거론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의 실태를 학년별, 시기별, 내용 요소별로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진로와 직업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하게 된다.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상담을 통하여 인성, 사회성을 지도하고 교육청, 교육과학원, 직능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에 대한 안내와 탐구를 유도한다. 또한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과시간에 직업에 관한 학습도 겸하게 한다. 3월경에 진로상담부를 중심으로 진로 ·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 직업탐구에 활용할 수 있는 좀더 좋은 자료의 개발 · 보급이 절실한 현실이다.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은 자신의 특성과 특기나 진로를 제대로 찾기가 어렵고,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학년과정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을 선택하고, 교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2학기 초까지 계속된다. 이 때 학부모와 학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이 바로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의 이해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원 수급, 시설 현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학년 내신이 수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교과지도가 중요한 진학지도가 된다. 특히 상위권 학생이 1학기수시모집에서 인기학과를 염두에 둔다면 내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학교평가도 아주 철저하고 공정 타당해야 한다.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하는 대학을 2~3개로 압축하여 수능 응시 영역과 내신 반영 교과에 따라 전공영역에 맞는 학과 및 수능 준비를 하되, 심화선택과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학생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교사는 이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대학의 입시 전형안을 교사가 먼저 이해하

고 검색하여 안내를 하거나 상담을 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대학 학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입학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확보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홈페이지나 진학상담센터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인문, 사회, 이공, 예체능 등의 과정을 바꾸기 위한 요구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의 상충을 적절히 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학부모에 대한 연수가 여러 차례 필요한 것은 1학년의 경우와 다름없다.

현재 3학년의 경우를 중심으로 2004학년도 대학입시를 살펴보면, 수능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과지도가 중심이며, 수능 성적과 내신이 확정되면 논술과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전공지도는 물론 대학 전형요소별로 지도를 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사교육과 차별화된 여유롭고 깊이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공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점이 무엇보다 교과지도의 전문성이란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요즘 이에 대한 사교육의 도전이 안타깝지만 점수따기 위주의 암기식 공부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오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교수 · 학습을 하는 공교육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단 현실적인 모습은 한 학급 내에서 성적 격차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니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문제다.

3학년에서는 대학진학의 가능성 상담을 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고,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위학교별로 지도를 하려니 공통된 자료의 가공이나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제공하는 배치표를 통하여 서열화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이 입시문화를 왜곡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학의 정보 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열성적으로 자신의 학급이나 학교 학생들을 상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상담교사협의회나 대교협 상담교사단처럼 온라인상에서 전국의 학생을 상대로 무료봉사 상담을 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

Ⅲ. 대학진학지도의 문제점

1. 복잡다기한 입시 전형 방식과 방안과 진학지도의 전문성 문제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대학별 입시 전형의 개별화, 개성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이해 곤란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점도 있다. 그러다보니 간단하게 본고사 부활과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미 겪은 바 있으니 이런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흡수하고 정리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진로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분야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2.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와 고등학교의 노력 문제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입

"

바람직한 입시 문화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각오와 노력이 남달라야 한다.
우선 다양한 입학 전형 방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하며,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비록 여건은 어렵지만 대학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

시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 수능 영역을 지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배려하지 못하여 지난 해와 올해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서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정 대학에서 이수단위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요구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수학하기 어려워서 대학 지원이 원천 봉쇄되는 일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와 조정으로 대교협과 함께 논의하여 대학이 많이 개선된 점은 다행이다.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선택을 존중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대학입시 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고, 내신평가에서 예체능계의 평가를 포함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도록 좀더 힘쓸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사례 중 1학기수시모집 선발 방식도 그 하나이다. 존폐 논란이 많지만 내년에도 일부 대학에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더욱이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대등한 선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3학년 초기부터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 외 업무 폭주, 선발 후의 합격생 지도 등이 역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선발 시기에서라도 좀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배려해야 한다.

3. 사교육의 증가와 대학의 정보 공개 문제

입시의 복잡 다기화는 필연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사교육의 증가와도 연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과외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학 관련 정보를 적당히 가공하여 홍보하고, 책임성도 결여된 합격가능성을 점치고, 점수 위주로 배치표를 만들어 대학의 서열화를 부채질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끌려가고 결국 공교육 불신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각 대학이 전형요소별로 합격자 평균점과 합격권 80%의 성적을 공개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대학과 학과 및 장래의 희망과 더불어 합격 가능성을 스스로 고려하고 판단하여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본다. 상담교사단 등에서도 요구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특히 명문대를 중심으로 심하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면에서도 신중

히 검토해 볼 문제다. 정보의 왜곡과 학부모 부담의 경감을 위해 대학이 노력할 부분이기도 하다.

4. 수능 이후 교육과정에 따른 면학지도의 문제

11월 첫 주에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내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도 전공관련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005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로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수업 파행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우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당해 학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올해에 대두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능 이후의 후유증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점에서 수능의 시기, 방법, 출제 · 검토위원의 선정방식 등에 대한 배려와 사교육이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보도도 공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도움의 차원에서 사려 깊은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문제

대학입시 문화를 점수 지상주의와 특정 인기학과 위주의 쏠림지원이라는 파행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시 문화를 만드는 데서 실마리가 풀린다고 본다. 그 열쇠는 우리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바른 방향을 잡는 데에 있다고 본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와 교사가 홍보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 바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그 기틀 위에서 입시 문화의 바로 세우기가 가장 절실한 이유가 된다.

Ⅳ. 개선방향의 모색

무엇보다도 입시 전형 방식이 근원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간명한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율화를 존중해야 하지만 산만하고 혼란하거나 낭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난립한 경시대회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은 바른 방향을 잡은 한 예라고 본다. 비교적 쉽게 이해되고, 업무적으로 간단하며, 명쾌하게 처리되는 입시 전형 방식을 바탕으로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열어 가는 진학지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시 전형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서는 입시 및 진학지도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상담해 주어야 한다. 온라인 상담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학과 정보도 상당히 새롭고 전문적이다. 예를 들어, '쎅서사이즈학과'란 무엇이며 개설 대학은 어디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 댄스학과 계통의 새로운 학과로 4년제 중 2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처럼 우리가 상담을 위하여 얻어야 할 지식은 너무도 많다.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지구별, 학교별 설명회도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

1학기수시모집은 우선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여름방학 중에 선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며, 선생님의 수업 부담을 줄여 주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각 대학은 선발한 학생의 연계지도 계획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학업에 중단이 없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대학은 입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대교협에라도 성실히 알려서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사교육의 유료화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 학생의 희망과 장래의 직업 전망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대학보다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보다는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진학 대상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수능 이후 면학지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를 하고, 덧붙여서 다양한 교양 강좌나 독서를 통한 내적 성숙과 체험을 통한 생생한 교육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논술이나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에게는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대안의 모색, 그리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이 살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으므로 입시와 관련하여 갈급한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내신 관리에 엄정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되 대학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온정주의로는 신뢰도 잃고,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공교육의 위상은 진학지도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과 노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인식부터 해야 한다.

Ⅴ. 맺는 말

바람직한 입시 문화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각오와 노력이 남달라야 한다. 우선 다양한 입학 전형 방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하며,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비록 여건은 어렵지만 대학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진학자료와 전형결과의 공개, 그리고 교육과정에 알맞은 수능 선택 영역의 예고와 적절한 내신 반영 방법, 또한 수시 입학의 적절한 시기와 추수지도 등이 바로 그러한 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입시 문화를 바꾸는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관리, 학부모 상담 등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입시가 지옥으로 표현되는 경쟁의 도가니가 아니고, 진학지도가 합격을 쪽집게질하는 일이 아니라 장래를 설계하는 창조적인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그 자리의 한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하기를 소망한다. 대학교육

이상갑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단국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복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단국대학교 강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뜻모아 이 길로』 외 다수가 있다.